

조선반도는 미국의 핵전쟁발원지

한 정 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습니다.》

핵무기를 휘둘러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변함없는 세계제패전략이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조선반도를 핵전쟁발원지로 삼고 저들의 대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조선반도를 미국의 핵전쟁발원지라고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미국이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핵기지로 전변시켜놓았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한것은 1950년대부터였다.

1957년 5월 당시 미국무장관이였던 덜레스는 기자회견에 나타나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할데 대하여 떠벌였으며 같은해 7월에는 미국무성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공식 발표하고 5개의 핵전투부대를 내온데 대하여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 다음해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2월 미국은 280mm원자포와 《오네스트존》미싸일부대를 남조선의 의정부에 배치하고 사열식까지 벌리였으며 남조선강점 미제7사단과 24사단을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1960년대에 미제는 남조선에 《호크》유도탄대대와 3개의 원자포대대를 새로 끌어들이는데 이어 1970년대에는 8in포사포용핵포탄, 《서전트》를 비롯한 각종 핵탄두, 《랜스》미싸일 등 핵타격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배비하였다.

결과 남조선은 1970년대에 벌써 《나이크 허큘레스》대공미싸일 144기, 《오네스트존》지상대지상미싸일 80기, 《서전트》지상대지상미싸일 12기, 《랜스》지상대지상미싸일 12기, 핵적재용인 《F-4팬텀》전투폭격기 48대 등 핵운반수단들과 항공기용핵폭탄 192발, 8in 포용핵포탄 56발, 155mm포용핵포탄 108발, 175mm포용핵포탄 54발, 핵지뢰 25~50발 등 1 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배비된 거대한 핵기지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이 핵무기들을 《유사시》에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남조선도처에 분산배치해 놓았다.

미국은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곳에 핵지뢰를 배설하여놓고 원격조종으로 폭발할수 있게 하였으며 의정부와 군산, 동두천, 춘천, 서울지역에는 지상발사핵무기를, 울산, 군산, 오산에는 야전용저장고와 핵공격임무를 수행하는 전술전투항공기들을, 광주에는 특군용핵저장고를, 대구에는 핵전쟁을 지휘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중전자감시소를 설치하였으며 부산항과 진해항은 핵무기를 적재한 미제7함대 함선들이 임의의 시각에 드나들수 있게 꾸려놓았다. 더우기 미국은 《20세기 악마의 무기》라고 하는 중성자탄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에 대하여 《이즈베스짜야》(1983년 7월 26일부)는 《중성자무기가 이미 남조선에 배치되어있을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뉴 코리아 타임스》(1982년 5월 7일부)는 《일본에서 전하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전두환도당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 중성자탄을 남조선에 배치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기지화책동은 1980년대 중엽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들이밀기 위하여 1985년에 1억 7 920만US\$를, 그 다음해에는 2억 1 890만US\$를 투자하였다. 미국은 1987년 2월에 핵탄두를 비롯한 각종 고성능폭발물을 장비하고 타격할수 있는 당시 나토의 주력무기로 되고있던 《랜스》전술핵미싸일을 남조선강점 미군에 추가배치하였으며 전략핵무력의 3대기둥의 하나로 불리우는 《B-52》전략폭격기와 《토마호크》, 《퍼싱-2》 등 핵미싸일들도 남조선에 배치하였다.

1980년대에 남조선에 배비된 핵미싸일발사대는 230여개에 달하였으며 오산미공군기지에는 핵폭탄 60개, 203mm포용핵포탄 40개, 155mm포용핵포탄 30개, 폭파용핵지뢰 21개, 군산미공군기지에는 《F-4》, 《F-16》전투폭격기용핵폭탄 60개, 핵포탄 70발, 《랜스》, 《오네스트존》미싸일용핵탄두들이 저장되어있었다.

이 시기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폭탄, 핵포탄, 핵탄두, 핵지뢰 등 각종 핵무기는 무려 1 720개에 달하였다. 이로써 남조선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 700배의 위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이후에도 남조선에 신형핵무기들을 계속 배비하였다.

미국은 1997년 2월에 일본 오키나와미군기지에 있던 우라니움탄을 공개적으로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배비하였으며 2003년에는 지하시설과피용핵무기들을 은밀히 끌어들였는데 이것들은 이 시기 미국이 남조선에 새로 배비한 핵무기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핵기지화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은 거대한 핵화약고, 핵기지로 전변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을 핵전초기지로 하여 우리 공화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벌림으로써 저들의 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할것을 꿈꾸고있다.

그러므로 오늘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미국의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조선반도를 미국의 핵전쟁발원지라고 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이 핵전쟁계획들을 작성해놓은데 기초하여 핵전쟁연습을 발광적으로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날로 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계획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부단히 수정보충해왔다.

1970년대의 《9일작전계획》, 1980년대의 《3일전쟁계획》, 《공지전에 의한 북침공격전략》, 《120일전쟁계획》, 1990년대의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7-98》 등은 모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명문화한 핵전쟁계획들이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작성된 속전속결의 공세전략을 구현한 《작전계획 5027-04》, 《북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 《우발계획》,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한 《신작전계획 5026》, 끊임없는 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로 그 누구를 이른바 《동

요와 붕괴에로 유도》한다는 《작전계획 5030》, 우리 공화국을 주되는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한 《핵태세검토보고서》 그리고 《작전계획 5029-05》, 《작전계획 8022-02》 등은 모두 핵전쟁계획들이다.

2002년 한해동안에만도 《유사시》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핵무기평가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북을 비롯한 미국의 적국으로 찍힌 나라가 미싸일을 개발하고 핵관련프로그램을 운영만 해도 선제공격할것》이라는 극히 무모하고 호전적인 《국가안보 대통령 명령 17호》, 《본토안보 대통령 명령 4호》 등이 련이어 작성되었다.

미국의 핵전쟁기도는 2005년 3월 15일 미합동참모본부가 필요에 따라 《각 지역 전투사령관들이 대통령에게 핵선제공격승인을 요청》할수 있도록 한 《합동핵작전결의초안》 작성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2008년에는 《새로운 정세변화의 대처》라는 미명 밑에 특수부대잠입과파방안과 토마호크방안에 따라 우리의 주요시설들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반공화국비상공격계획이 또다시 작성되었다.

미국은 핵전쟁계획들을 련속 작성하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놓고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였다.

1970년대 중엽부터 1990년대초까지의 기간에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린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핵수행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때마다 《B-52》전략폭격기, 《F-111》가변익전투폭격기, 1개 항공모함기동부대, 8인곡사포, 155mm곡사포, 《A-6》, 《A-7》, 《F-4》 등 핵장비들은 물론 신형핵무기들도 련속 동원하여 핵무기사용훈련을 벌리었다.

《팀 스피리트-78》합동군사연습에 고정적으로 동원되는 핵장비외에 새로 중성자탄발사용인 《랜스》미싸일 18기를 끌어들여 군사분계선가까운 의정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향해 모의발사훈련을 벌렸으며 《팀 스피리트-82》연습부터는 중성자탄을 운반할수 있는 《F-16》전투폭격기들을 끌어들여 지상에 대한 핵타격훈련을 벌리었다.

미국은 미북군의 공격전략인 《공지전》전략이 나온 다음해에 있는 《팀 스피리트-83》연습에 초대형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미드웨이》호 등 2개의 항공모함기동부대를 동원시켰으며 《팀 스피리트-85》연습부터는 핵배낭을 장비한 특수부대까지 끌어들여 후방교란작전을 벌리었다.

우리의 반대와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배격에 의하여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된 후 그 대신으로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벌린 《독수리》, 《을지포커스 렌즈》, 《아이온 아테프》, 《프리덤 배너》 등의 합동군사연습들에는 옹근 하나의 현대전도 치를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핵타격수단들이 동원되었다.

이외에도 미국은 2007년에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가상전투행동지역까지 설정해놓고 남조선강점 미군은 물론 본토와 해외기지들로부터 기갑부대와 《스트라이커》부대 등 2006년에 비하여 2배나 되는 전시증원병력과 미제7함대의 기함인 《블루릿지》호, 핵동력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타격집단을 비롯한 해상무력들 그리고 각종 최신형공중타격수단들까지 동원하여 전시를 방불케 하는 핵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해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가장 대규모적인 핵전쟁연습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는 2만여명의 미군과 각종 공중타격수단들, 미 핵동력항공모함 《스테니스》호전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 그리고 수십만명의 남조선피뢰군과 민간인, 관리들까지 참가하여 공수작전연습, 특공대의 후방침투작전, 화학전연습, 해상공격연습, 공중타격연습, 유도탄발사연습 등의 전쟁연습들을 벌리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연습소동과 핵위협소동은 최근에 와서 더욱 기승을 부리며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겹고들면서 2013년 3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처음으로 《B-2A》스텔스전략폭격기를 미국본토에서 남조선지역상공에 들이밀어 핵폭탄투하모의훈련을 벌리였으며 지어 요격미싸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 《존 에스. 맥케인》호와 《디케이더》호, 란도미싸일탐지용 이동식해상레이다《SBX-1》과 2개의 핵항공모함집단까지 조선반도가까운 수역에 기동전개해놓고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로 기습공격하려고 발광하였다.

미국의 핵전쟁연습소동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계속 감행되었다.

2015년 8월 미국은 감히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작전임무로 내세운 남조선미국연합사단의 침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투입하고 모든 작전지휘소들을 전개한 상태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미친듯이 벌려놓고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하였을 뿐아니라 조선반도의 정세를 교전직전의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갔다.

특히 2016년 1월초에 우리 공화국이 첫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자 미국은 미핵항공모함 《존 씨. 스테니스》호전단을 조선반도주변과 동북아시아지역에 장기주둔시키기 위하여 출항시켰으며 미군특수정찰기를 내몰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찰행위를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미국의 3대핵타격수단의 하나인 《B-52》전략폭격기와 미공군의 《F-22》최신에스텔스전투기들을 동북아시아지역에 출동시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을 탐지하고 파괴하기 위한 전쟁각본으로 미국과 남조선이 작성한 《4D작전계획》을 올해 최대규모로 전개되는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기간에 처음으로 적용하려 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과 핵위협소동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이 핵강국의 전렬에 들어선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만약 미국이 핵강국인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망각하고 핵전쟁도발책동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종말을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맞게 될것이다.